

순천시, 국가정원박람회 수익금 복지에 쓴다

아동·노인 등 분야별 지원 시책 수립...하반기부터 추진 수익금 연말까지 늘어날 것 “모든 계층에 온기 나눌 것”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복지비로 쓰여진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수익금을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전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펼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110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인구 30만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단일 관광지 하나로 3개월 만에 1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이중 약 51억원은 그간 외주화되어 있던 국가정원 운영을 전면 시직영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절감한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복지정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인 분야에서는 고령화사회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소통 공간이자 사회참여 공간으로서의 경로당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남부 복지관의 협소한 식당 신축과 더불어, 치매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이 연계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도 추진한다.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순천을 위한 여러 시책도 발굴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던 방학 중 돌봄기관 이용 아동

의 급식비 지원은 이미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어 2024년 하반기부터 50% 혜택을 받게 됐다. 내년부터는 그간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 100만원을 지급했던 산후조리비를 저출생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첫째아부터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반별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 교육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연령별로 50% 지원할 예정이다.

벽지마을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마중택시 사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 1인당 월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6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장애인 회관을 건립해 관내 곳곳에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 간 원

활한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농기계 공공임대·도심형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단순한 지원을 넘어 미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혁신 거점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제는 정말 생태가, 정원이, 습지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왔다. 모두들 정원과 습지를 가진 순천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있다”며 “이 수익금이 시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물이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광영초 통학로 주변

광양시는 광영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녹지 공간을 숲으로 가꾸는 사업이다. 쾌적한 녹색 환경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을 억제해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푸른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다.

광영초등학교 주변에는 에메랄드그린, 블루엔젤, 리틀자이언트(동근족백), 오색남전, 무늬쭈뽕, 실은썩 등 관목, 지피류를 식재했다. 그리고 일부 화단에는 추가로 벤치를 설치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광양시는 초등학교 밖 녹지에도 금목서, 굴거리나무, 에메랄드그린, 홍가시나무 등 교목을 심어 방치된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김종용 녹지과장은 “자녀안심 그린숲이 도시숲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숲 조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비 2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광양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년 동안 광양북초등학교, 중진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광양서초등학교, 광양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녹지 공간을 숲으로 가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녹지와 가로수팀(☎ 061-797-2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AI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흥군, 7월부터 시범운영

고흥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2단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45종 위기 정보 및 대상자 정보)를 활용해 복지유급 파악을 통한 신속한 초기상담과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새로운 복지발굴 수요에 대응하고자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 시범사업이다.

AI 초기상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통보된 위기 의심 가구에 문자 발송과 함께 사전 안내를 진행한 후 대화형 AI에 기반한 자동전화시스템으로 본인 확인 △위기 파악 △유급 확인 △심층상담 여부 확인 순으로 진행되며,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한 대상자에게는 군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심층 상담을 실시한다.

이로써 초기상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위기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심층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신속한 적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민섭 기자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특색 담은 22종 추가 선정

여수시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22종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존 농·수산물 위주의 답례품에서 탈피, 요트 탑승권 등 새로운 품목을 채택

하여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추가 답례품은 △요트 탑승권(92인승) △삼섬옥수수 소금빵·파운드 케이크 △삼섬여수옥수수마들렌·옥수수 조청 오란다 △프라이빗 요트투어 △여수돌산갓·고등어 △여수딸기·썩·종합잡쌀떡 △블렌딩 썩차 △멸치 △여수옥수수 △참맛여수노루궁뎅이버섯쥬·유기농머쉬빈 △삼섬황시에 등 11개 업체 제공 22종이다.

추가 선정 답례품은 8월부터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많은 분이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만습지에서 ‘순천만 갈대 빗자루 장인 1호’ 김진두 장인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며, 관광객들에게 갈대 빗자루 만들기 체험을 선보이고 있다.

순천만습지, 갈대 빗자루 만들기 체험

순천만습지에서 ‘순천만 갈대 빗자루 장인 1호’ 김진두 장인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며, 관광객들에게 갈대 빗자루 만들기 체험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참가자들은 갈대의 선별부터 손질,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갈대 빗자루를 만들 수 있다. 김진두 장인의 세심한 설명과 갈대와 얽힌 옛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는 체

험을 더욱 흥미롭게 해준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에 주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갈대 빗자루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재미동포 사무엘(Samuel) 가족은 “갈대 빗자루를 만들면서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부모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었다”며 “다시 방문한다면 그때는 더 큰 빗자루를 만들어 보고 싶다.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다”고 감격을 드러냈다.

갈대 빗자루 만들기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총 5회씩 운영되며,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습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순천만보전과(061-749-6072)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친환경 농업 업무협약 체결 구례군-흙살림

구례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흙살림과 친환경 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순호 군수와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친환경 농업 실천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탄소중립과 흙살리기 행사 지원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흙살림은 1991년 괴산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대한민국 유기농업을 선도하며 흙 살리기 운동을 30년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흙살림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사업,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판매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숨 기능성 제제를 태국에 수출하는 등 활동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 등 구례군의 흙 살리기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보성군,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 사업

보성군은 ‘마을 건강 복지600’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5일까지 12개 읍면 경로당에서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은 지역사회 재능기부자를 발굴해 마을에 필요한 활동으로 (사)보성군새마을회(회장 임영서)가 주최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7개 재능 봉사단체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재능기부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건강 체크, 손 마사지, 칼갈이, 이미용, 화장(메이크업), 스타일링

촬영, 부채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온기 나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김 모 할아버지는 “이발도 해주고, 팝콘도 즉석에서 만들어 먹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보성군새마을회 임영서 회장은 “봉사가 있을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신의 재능을 농촌 주민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

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촌에 활력을 적극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 외에도 지난 11일부터 13일 순천제일교회 주관으로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노동면 취약계층 11가구와 마을회관 6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 하계 재능봉사’ 활동을 추진했으며, ‘이동 빨래방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